

2018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AAT)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험번호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⑩	
성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 성장은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이 동일한 크기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인 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축소될 수도 있고 반대로 확대될 수도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 소득 불평등이 20세기 전반기에는 완화되었다가 20세기 후반기에는 심화되었다. 역사적 추세의 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관찰을 배경으로, 최근 들어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 종래의 견해는 성과에 따라 보상에 차등을 두어야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불평등의 심화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의 실증 연구에 기초하여 최근에는 불평등한 소득 분배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 견해의 설득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 성장의 동력 가운데 하나인 '인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지지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적 자본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인간에 축적되는 생산적 자원이다. 새로운 견해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 활동의 속성 상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기회가 소수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확산될수록 인적 자본의 형성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를 기초로 이들은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빈곤층의 인적 자본 투자가 제한됨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인적 자본 형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단한 예를 통해 이 점을 살펴보자. 가상의 국민 경제가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소득을 가난한 사람부터 나열하면 (1, 2, 8, 9)와 같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자. 인적 자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각자 3만큼의 고정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빈곤층은 금융 활동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국민 경제 전체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6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국민 소득은 20으로 동일한 가운데 소득 분배가 (2, 4, 6, 8)과 같이 더욱 평등하게 바뀌면 인적 자본에 대한 총 투자는 9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불평등의 완화는 분배 정의의 실현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투자의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1-1. ㉠을 근거로 할 때 ㉡에 의하면 20세기 중엽과 20세기 말엽의 경제 성장 속도가 어떠할지를 추론하시오. 단, 다른 모든 조건은 같다고 가정한다. (60자 이내) [20점]

---



---

1-2. <보기>는 윗글을 읽고 갑, 을, 병이 나눈 대화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보기>

갑 : 마지막 문단의 예는 너무 작위적인 것 같아. 내가 다른 예를 들어 볼게. 가령 인적 자본에 투자하기 위한 비용이 각자에게 3이 아니라 7이라면 소득 분배가 (1, 2, 8, 9)인 경우 총 투자가 (ㄱ) 인 반면, 소득 분배가 (2, 4, 6, 8)로 바뀌면 총 투자가 (ㄴ) 이(가) 되어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

을 : 그렇지만 네가 말한 것처럼 비용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이 교육을 못 받는 것도 실제 현대 사회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아?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7이라는 교육비용 가정은 지나친 것 같아. 오히려 윗글에서 (ㄷ) (라)고 가정한 것에 더 주목해야 해. 그 가정을 다르게 바꾸면 빈곤층도 인적 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 꼭 불평등 해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거든. 금융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총 분해되는 것이지.

병 : 금융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보다는 교육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공적 교육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가 교육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듯해. ㉣ 그래야만 경제 성장이 초래하는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① 빈 칸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를 적으시오.  
(ㄱ) \_\_\_\_\_ (ㄴ) \_\_\_\_\_

② 빈 칸 (ㄷ)을 채우시오. (30자 이내)

---

③ 성장과 불평등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의 관점은 ㉣에 나타난 관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90자 이내)

---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명나라 때 유현의 아들 유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사씨와 결혼한다. 9년이 넘도록 출산을 못하자 사씨는 유연수에게 첩을 들일 것을 권하고, 유연수는 어쩔 수 없이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인다. 교씨가 아들 장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사씨도 아들 인아를 낳는다. 이에 교씨는 문객(門客) 동청 등과 짜고 사씨를 모해하고자 한다.

장주가 죽은 것을 알고 ㉠ 교씨가 대성통곡하였다. 동청이 쓴 계책을 알았으나,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때를 타 계책을 이루기 위해 한림[유연수]에게 달려가 알렸다.

“이는 분명 지난번 우리 모자를 저주한 사람이 한 것이니, 하인들을 심문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림이 즉시 하인들을 큰 곤장으로 엄하게 심문했다. 교씨의 시녀인 납매가 말했다.

“제가 문밖을 지나다 보니 사부인의 시녀인 춘방과 설매가 난간 아래에서 무슨 말을 하다가 헤어졌는데 그러고 오래지 않아 이러한 변이 생겼으니, 두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납매와 입을 맞춘 설매가 말했다.

“사부인이 저희 두 사람을 불러 이르기를 ‘너희가 장주를 죽인다면 마땅히 크게 상을 내리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마침 장주가 홀로 자고 있기에 춘방이 비로소 손을 썼습니다. 저는 운몸이 떨어져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교씨가 방으로 들어가 수건으로 목을 매니, 시비가 급히 구해냈다. 이에 교씨가 말했다.

“첩은 만 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습니다만, 투기하는 부인에게 정부(情夫)가 있으니 상공에게 독수가 미칠까 걱정입니다.”

말을 마치고는 다시 목을 매니 한림이 급히 구하고서 말했다. “장주의 죽음은 실로 천지간에 있을 수 없는 변고다. 투기하는 부인을 집안에 둔다면 반드시 조상님께서 제사상을 받지 않으시고 자손이 끊어지리라.”

다음날 한림이 유씨 집안의 친족들을 맞아들여 사씨의 전후 죄상을 모두 말하고 쫓아낼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씨는 말과 행동이 침착하고 조금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중략)

㉡ 임씨는 사씨의 추천 아래 상서[유연수]의 첩으로 유씨 문중에 들어온 뒤에는 선하다는 명성을 얻었다. 상서는 목종조(穆宗朝)에 각로(閣老) 자리에 올라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황후가 사씨의 어진 덕행을 듣고 자주 불러 보니 궁궐 안 여인들이 모두 스승으로 섬겼다. 사씨와 임씨가 친자매 같이 우애 있게 지내니 집안이 화평하였다. 상서와 사씨는 해로하다가 팔십에 이르러서 함께 세상을 떠났으며, 임씨 역시 무궁한 복을 누렸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2-1. <보기>의 ㉠에 주목하여 윗글에서 ㉠과 대조되는 ㉡이라는 인물을 설정한 이유를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첩 제도와 관련한 갈등을 형상화한 소설로서의 『사씨남정기』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40점]

<보기>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중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과 세계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특정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산물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 『사씨남정기』는 조선 후기 처첩 제도와 관련한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2-2. <보기>의 ㉡에 주목하여 『사씨남정기』를 ‘표현론적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할 때, 윗글의 ‘사씨’, ‘교씨’, ‘유연수’는 각각 <보기>의 누구에 대응하는가를 밝히시오. [30점]

<보기>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중 ‘표현론적 관점’은 작품과 작가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그간 『사씨남정기』는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중전에 책봉한 사건을 풍자하여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김만중이 지은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아래의 글을 참조하면, 김만중은 이와는 ㉢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사씨의 모습은 보편적 윤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현숙한 숙녀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상적인 군자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옮긴 김춘택도 사씨의 현숙함은 초(楚)나라의 충신 굴원(屈原)의 충절처럼 군자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윤리성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김만중이 『사씨남정기』를 지은 시기는 숙종 재위 시에 남해의 섬에 유배 중일 때였으며, 이때 김만중은 자신이 반대당파에 의해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고 생각하였다.”

사씨 : \_\_\_\_\_ , 교씨 : \_\_\_\_\_ , 유연수 : \_\_\_\_\_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 삶의 토대인 문화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각각의 문화는 서로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 존재하는 분리된 개체이며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교가 불가능한 실체이다. 따라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며, 개별 문화 현상이나 특징이 해당 문화의 전체 체계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는 각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그 문화의 독자적 가치나 의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시각에서 다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 문화의 구성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개인'에는 구체적인 문화의 특수한 환경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기 다른 개별적인 문화 속에서 개인이 지니는 의미와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과정들에서만 요청되는, 내용 없는 개념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 문화 속 개인의 자율성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문화의 고유한 삶의 양식이다. 따라서 개별 문화의 특성을 그 자체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그가 속한 집단의 기본적 권리와 자율성,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해줄 것, 즉 '차이의 인정'을 요구한다. 차이의 인정을 위해서는 평등한 권리에 대한 보장을 넘어 개인과 집단 각각의 자아정체성이나 문화적 정체성의 '내적 가치'를 그 자체로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내적 가치가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만 그 문화 속의 개인이 지닌 자유와 자율성이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한 문화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생활양식, 전통의 온전함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가 오히려 그 문화권 내의 개별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차이의 인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에 따라 평가되고 인정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개별 문화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전통과 삶의 양식의 보호는 오직 그 구성원들의 인정에 기반을 두어야하기 때문이다. 개별 문화 특히 소수 문화의 생존은 생물종의 보존과 다르며, 그 구성원들의 인정과 지지를 기반으로 한 자기변형의 힘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 있다. 개별 문화의 특수성을 근거로 그 구성원이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과 자율성을 제한받게 된다면, 그 문화는 자기변형을 통한 문화 유지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 속의 개인들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과 자유를 가져야 한다. 또한 소속된 집단의 문화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지 않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통적 관습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개인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이런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활동이 다양한 문화들의 존재와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3-1. <보기>의 ㉠와 ㉡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와 (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서술하시오. (135자 이내) [40점]

<보기>

㉠ 개인의 자율성, ㉡ 차이의 인정

---

---

---

3-2. <보기>에서 말하는 '히잡'과 '명예 살인'이 문화적 차이로 관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를 윗글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135자 이내) [30점]

<보기>

**히잡(hijab)**은 이슬람에서 여성의 신체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쓰는 가리개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히잡을 강요받지 않았던 서유럽이나 미국의 이슬람 여성은 “히잡을 쓰면서 내 몸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명예 살인(honor killing)**은 가족과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성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예 살인의 피해자는 국제연합의 통계에서 연간 5,000명 이상에 달한다.

---

---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영업자 A는 2017년 3월경 화가 B로부터 벽화 1점의 값을 모두 지급하고, 벽화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자신의 카페 내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카페의 고객들이 카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불평하자, A는 설치 1개월 후 벽화를 철거, 소각하였다. 아래의 (나)는 B가 주장하는 글이고, (다)는 A가 주장하는 글이다.

(나) A는 위 벽화에 물을 분사하여 벽체에서 벽화를 떼어 내는 방법으로 철거하였고, 철거 과정에서 벽화를 훼손하였으며, 이후 이를 소각하였다. 이러한 벽화에 대한 철거, 훼손, 소각의 각 행위는 B가 창작한 벽화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행위로서 동일성유지권의 저작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 하고, 이 권리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된다. 예컨대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1항에서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유권자가 저작물을 파괴한 경우 저작자가 갖는 보존의 이익과 소유권자가 갖는 파괴의 이익을 비교하고 저울질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 제1조의 일반규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등을 통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대상에 작품의 파괴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A는 B의 벽화를 떼어 내어 폐기함으로써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적 침해가 인정되려면 저작물의 이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벽화를 영구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떼어내는 데 대하여 화가 B의 암묵적 양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A가 벽화를 떼어 내는 과정에서 일부 손상이 이루어진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다.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에서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유권자 A는 자신이 소유한 저작물을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능에는 저작물을 파괴할 권리도 포함되며, 벽화의 철거, 절단 등은 폐기 과정의 일부일 뿐이므로 별도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B가 벽화에 대한 소유권을 A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 받은 이상, 벽화의 소유권자인 A의 그 벽화 자체에 대한 처분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헌법에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 중 경제적 자유로서의 재산권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고, 그 재산권 중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며 이는 우리 민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4-1. 위 글은 A와 B가 각각 헌법에 명문화(明文化)된 서로 다른 기본권을 주장함으로써 기본권 충돌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A와 B가 주장하는 헌법상의 기본권(들)은 무엇인지 적으시오. [30점]

A: \_\_\_\_\_

B: \_\_\_\_\_ , \_\_\_\_\_

4-2. <보기>는 (나)의 입장에서 (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이다. <보기>를 참조하여 (다)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220자 이내) [40점]

\_\_\_\_\_ <보기> \_\_\_\_\_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저작권적 권리를 가진다. 벽화에 대한 철거, 소각 행위는 B가 창작한 벽화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행위로서 저작권적 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 제1조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해 보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대상에 작품의 파괴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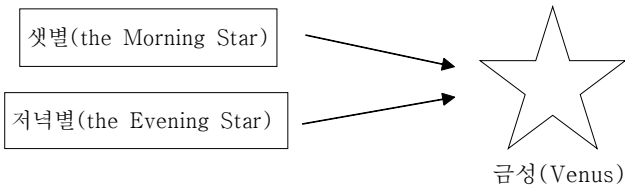
\_\_\_\_\_

\_\_\_\_\_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프레게는 ‘의미(意味, meaning)’에는 ‘의의(意義, sense)’와 ‘지시(指示, reference)’라는 두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셋별은 저녁별이다(The morning star is the evening star).”라는 명제를 예로 들면서 단어나 구가 지니는 언어 내적 의미인 ‘의의’와 단어나 구가 언어 외적으로 지시하는 ‘대상(對象, referent)’을 구분하였다. ‘셋별(the Morning Star)’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계절의 새벽에 뜨는 특정한 별’이라는 의미를 지녔으며, ‘저녁별(the Evening Star)’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계절의 저녁에 뜨는 특정한 별’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두 표현의 ‘의의’는 다르다. 그러나 이 두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하다. 즉 아래 <그림 1>에 표시되어 있듯이 ‘셋별’과 ‘저녁별’은 ‘금성(Venus)’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들인 것이다.

<그림 1> 표현들과 대상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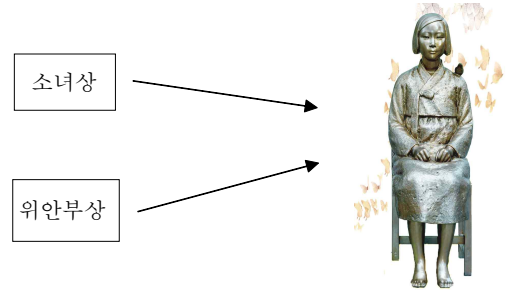


(나) 언어의 ‘자의성(恣意性)’은 ‘특정한 대상을 그렇게 불러야 할 필연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단어나 구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간의 관계가 ‘자의적’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물에 있는 액체를 가리키면서 ‘물’, ‘water’, ‘eau’, 혹은 ‘shui’ 등과 같이 언어마다 다르게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의성’은 프레게의 이론에서 단어나 구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간의 지시 관계만을 고려한 용어이다. 즉 단어나 구의 언어 내적 ‘의의’ 차원에서의 차이는 무시된 것이다. 여기서 ‘의의’ 차원의 차이는 무시되어도 좋은 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나 구의 차이가 ‘물’, ‘water’, ‘eau’, 혹은 ‘shui’에서와 같이 ‘의의’ 차원의 차이가 가치중립적인 차이일 때는 무시되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때는 ‘의의’ 차원의 차이가 매우 중요할 수가 있다. 가령 어떤 독재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위대한 영도자’로 부르거나 혹은 ‘극악무도한 독재자’로도 부른다면 여기서 두 구가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인이지만 두 구는 매우 다른 ‘의의’를 지니게 되며 그 차이가 중요해 지는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에게 좋은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가끔씩 개명을 하는 이유는 그 개인이나 단체가 ‘의의’ 차원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더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다)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그림 2>의상이 세워졌다. 일본에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매주 수요일 열어왔으며 1,000번째 수요 집회가 열리던 2011년 12월에 세워졌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상을 ‘평화의 소녀상’ 혹은 줄여서 ‘소녀상’이라

고 부르지만 일본 정부는 굳이 ‘위안부상’이라는 명칭을 고집하고 있다. <그림 2>의 상을 놓고 한일 간에는 ‘소녀상’이나, ‘위안부상’이라는 ‘명칭 전쟁’이 일어났으며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림 2> 표현들과 대상 간의 관계



5-1. (가)를 바탕으로 다음에 답하십시오. (각 55자 이내) [30점]

① “소녀상은 위안부상이다.”라는 주장이 성립되는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



---

② “소녀상은 위안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성립되는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



---

5-2. (다)의 ‘명칭 전쟁’이 일어나게 된 두 가지 근본적인 요인을 (나)에서 찾고, 각각의 요인으로 인해 ‘명칭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각 55자 이내) [30점]

① \_\_\_\_\_

---

② \_\_\_\_\_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 과학의 탄생 이후 많은 학자들은 올바른 탐구의 기준을 과학에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과학적 지식이 엄밀한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객관성이란, 하나의 사실에 동일한 조건만 주어지면 누가 관찰하고 실험하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과학은 개인의 감정, 가치판단, 선입견 또는 지적 배경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가치중립적 지식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과학은 개별적인 것에 관한 탐구로부터 출발하지만 개별적인 것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복적인 관찰과 실험을 토대로 일반법칙을 이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학적 방법은 자연과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과학, 심리학 등 다른 영역의 학문에도 적용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문학, 윤리학, 신학 등과 같은 학문의 대상에도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인간의 정신 활동과 역사도 일정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 현상과 같이 필연적인 인과 관계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편견은 물론, 초자연적인 힘 또는 형이상학적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인 설명, 기술, 예견 등이 가능한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 시 또는 문학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법칙을 통한 인과적 설명과 예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 편의 시가 일반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경우에는 그 작품 자체의 내용이 훼손될 수도 있다. 오히려 작자와 독자는 작품 하나하나의 고유한 의미에 더 관심을 가진다. 작품은 인간 정신의 산물로서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자연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주관적 체험을 통해 더 잘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다. 문학과 다른 영역에 속하는 역사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 역사적 사건도 일회적이며 특수한 것이므로 그것을 어떤 일반법칙으로 환원시켜 설명하고자 한다면 그 사건이 지니는 특성은 오히려 간과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는 혁명의 일반적인 성격보다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자체와 1917년에 발생한 러시아 혁명 자체가 지니는 고유하고 개별적인 성격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 대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가치판단이 배제된 과학적 가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속한 역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관찰자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을 통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간의 정신 활동이 투영된 작품이나 인간 삶의 역사를 파악하는 학문은 과학적 객관성보다는 주관의 체험을 넘어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6-1. ㉠에 따르면 역사적 사건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일반법칙을 통해 어떤 사건의 과거와 미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험펠(C. Hempel)은 <보기>의 방법으로 설명한다. <보기>에서 제시한 기호 E, C, L을 ( )에 넣어 설명을 완성하시오. [20점]

<보기>

설명은 언제나 두 전제, 일반법칙과 초기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즉, 어떤 사건(E)에 대한 설명은 초기조건(C)과 경험적으로 검증된 어떤 일반법칙(L)을 말하는 진술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터졌다’는 사건을 설명하려면 먼저 ‘라디에이터에 물이 들어있었다’, ‘기온이 0°C 이하로 내려갔다’와 같은 초기조건과 그와 관련된 ‘물은 0°C 이하에서 언다’, ‘물이 얼 때 압력이 증가한다’와 같은 일반법칙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사건을 일어나게 한 과거의 원인을 알려면 ㉡( ), ( )로부터 ㉢( )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반대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예측하고자 할 경우에는 알고 있는 ㉣( ), ( )로부터 ㉤( )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 ( ), ( )      ㉢ ( )  
 ㉣ ( ), ( )      ㉤ ( )

6-2.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각 110자 이내) [50점]

① (가)와 (나)는 학문의 서로 다른 방법을 주장한다. ‘개별적인 것’ 혹은 ‘일회적이고 특수한 것’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가)와 (나)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서술하시오.

\_\_\_\_\_

\_\_\_\_\_

\_\_\_\_\_

② (가)와 (나)는 ‘가치중립’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나)의 입장에서 (가)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_\_\_\_\_

\_\_\_\_\_

\_\_\_\_\_